

바다무지개

2015년 6월 초



현충일 6월6일

1. 현충일에 쉬는 이유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忠節)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공휴일

2. 현충일의 뜻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

3. 현충일의 유래

현충일을 6월6일로 정한데는 우리 민족의 풍습이 반영된 것임. 우리 선조들은 24절기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당중에는 제사를 지내왔음. 그래서 1956년 제정 당시 당중일인 6월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임.

4. 현충일이 6월 6일인 이유

애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기념일.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현충일로 불러 오다가 75년 공시 개정되었다.

1982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 이 날 대통령 등 정부요인과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기념식과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올리고 애국지사과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애국 충정을 기린다.

5. 현충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장병들을 위해 다시금

현충일은 우리 선조님들의 피를 흘리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 한송이 꽃이되어 하늘나라로 가신 고귀한 분들입니다.

현충일은 조기를 단념니다.

오는 6일은 현충일(顯忠日). 나라의 부름을 받고 조국의 산하(山河)에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정부는 이날 추념 행사를 실시, 오전 10시부터 묵념 사이렌을 1분간 울린다고 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사이렌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각자 위치에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작구청은 참배객들의 주차를 위해 현충원 주변 경문고·세화여고·중대부중·혹석초·은로초등 운동장을 개방(오전 7~오후 6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현충일을 맞아 조기(弔旗) 및 태극기(國旗) 게양법, 국기에 대한 경례법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조기는 언제, 어떻게 게양하나.

“현충일과 국장(國葬)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단다. 깃봉에서 깃폭(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단다.”

- 게양 시간은.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 게양대 국기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시작은 오전 7시다. 강하 시작은 3월부터 10월까지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지는 오후 5시다.”

<현충일에 조기 다는 법>

조기다는 위치



경축일 필일



조의를 표하는 날

이달의 interview



국적 : 스리랑카(SriLanka)

성명 : Ranaweery Witharana Ruwan
Uditha

나이 : 30세(1985년생)



우선 스리랑카에 대하여 공부도 해 보았다.

정식명칭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이다. 북서쪽으로 만나르(Mannar) 만(灣)을 사이로 인도의 타밀나두(Tamil Nadu)주와 마주 대한다.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불교 등 고대 문명이 풍부하게 녹아 있는 문화의 보고(寶庫)이자 세계 굴지의 보석 산출국이다.



[사진1] 스리랑카 국토

인도의 남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다. 과거에는 실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국토의 생김새가 꼭 눈물 혹은 진주처럼 생겼는데 지리적으로도 인도의 꼬리 쪽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의 면적은 65,610 평방/㎢로 한반도의 약 1/3크기이며 기 후는 고온다습, 열대성기온인데 수도인 쿨롬보는 연평균 기온이 27℃이다. 인구는 20,869천명(2011년)인데 수도 쿨롬보에 약 70만명이 살고 있고 수도를 중심으로 2,580천명 즉, 수도권에 12.4%가 살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333명 평방/㎢(2011)이다.

역사적으로 스리랑카 주민은 기원전 8세기경에 인도 북부로부터 건너와 원주민을 정복하고 왕국을 이룩하였다. 이후 16세기에 들어와 유럽 열강의 침입을 받아 약 440년간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의 식민통치를 거쳐 왔으며, 1948년 2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사진2] 스리랑카 독립기념관

그러나 1971년에 극좌분자에 의한 무장반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져 국내정세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으며, 1977년 10월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다음해에는 종전의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국명도 현재의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하였다. 1999년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내전이 일어났으나 2005년 11월 라자팍세 대통령이 취임하여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경중립의 입장에서 1955년 유엔에, 1961년 비동맹회의에 가입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리랑카[Srilanka] (두산백과)

인종은 싱할라족(74%), 타밀족(18%), 무어족(7%), 말레이족, 버거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는 불교가 69.3%로 가장 많고 힌두교 15.5%, 이슬람교 7.5%, 기독교 7.6% 순이며 언어는 싱할라어, 타밀어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할리어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영국과 인도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타밀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 중이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현재는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대통령이고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로 국회는 단원제 225석으로 임기는 6년이다.

	2010	2011
○ G D P	496억불	592억불
○ 1인당 국민소득	2,399불	2,836불
○ 경제 성장률	8%	8.3%
○ 총 수 출	86억불	106억불
○ 총 수 입	135억불	203억불
○ 물가 상승률	5.9%	6.7%
○ 실 업 률	4.9%	4.2%
○ 총 외 채	202억불	233억불
○ 정 부 부 채	459억불	513억불
○ 화 폐 단 위	루피(Rupee) (US\$ 1 : Rs.110.57루피, 2011 기준)	

[표 1] 스리랑카 경제현황

1985년 수도를 이전하여 콜롬보(Colombo)는 행정수도이고,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SriJayawardenepuraKotte)는 입법과 사법수도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요지를 차지하며, 인구는 남서부에 집중해 있다. 행정구역은 9개 주(province)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1977년 11월 14일 대한민국과 정식 수교하였으며, 이후 스리랑카는 비동맹회의 등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양국은 1978년에 항공 협정과 문화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80년 1월에 투자보장 협정, 1984년에 무역 협정, 1986년 6월에 이중과세방지 협정, 1994년에 과학기술 협정등을 체결하였다. 한편, 1977년 이후 여러 차례의 건설공사를 맡아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하였고, 1973년 이래 스리랑카의 기술 연수생을 초청하여 연수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 스리랑카 수출액은 2007년 현재 1억 8611만 달러로 주 종목은 의류·플라스틱제품·가전제품 등이고, 수입액은 4732만 4000달러로 주 종목은 코코넛 등 농산물이다. 아울러 한국과의 시차는 한국보다 3시간 30분이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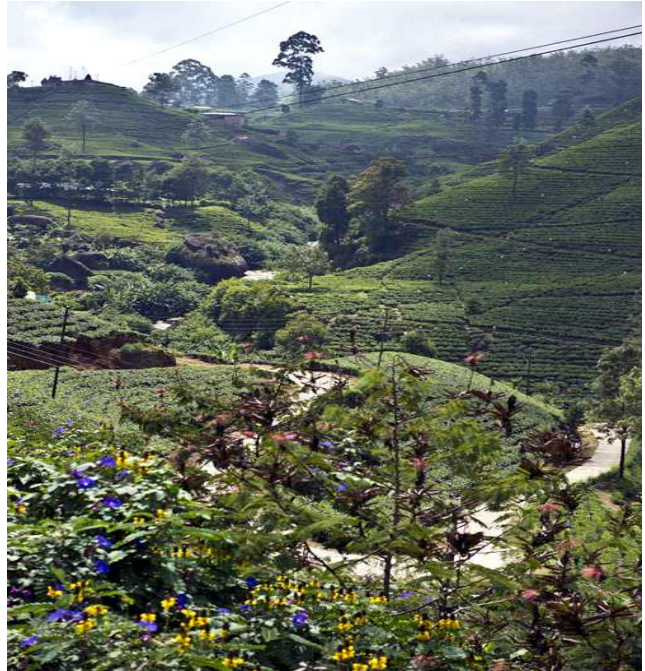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7명의 스리랑카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2007년 현재 스리랑카에는 KOTRA를 비롯하여 한진해운, 경남기업 등 70여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865명의 체류자가 있다.

한편, 북한은 1960년 9월 통상대표부 개설 후 1970년 7월 15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1971년 4월 스리랑카 정부전북기도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북한공관의 폐쇄 및 공관원추방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1975년 3월 다시 외교관계가 재개되고 2008년 현재 주 인도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양측은 1962년 2월에 무역 및 통상협정, 1963년 6월에 과학문화협조 협정, 1976년 6월에 무역 협정, 1963년 9월에 과학기술 협정, 1976년 6월에 항공봉사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북한의 대 스리랑카 수출액은 2007년 현재 37만 8000달러로 주종목은 직Ofb이고, 수입액은 6만 1000달러로 주종목은 유기화합물 등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스리랑카는 1972년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국명이 바뀌기 전까지 실론(Ceylon)으로 불리었다. 홍차를 일컫는 ‘실론티’ 역시 스리랑카의 옛 국명에서 유래될 만큼 스리랑카는 세계 최대의 홍차 수출국이다. 스리랑카의 섬 중앙 산맥 지역에서 홍차가 주로 재배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론티의 보고 누와라엘리야가 대표적인데 차 공장이 많이 있으며 사방에 가득한 차밭 풍경과 더불어 향이 진하면서도 맛은 부드러운 홍차를 맛보는 것도 스리랑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묘미이다.



[사진3] 웅장한 실론티 밭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국가로 ‘플론나루와’ ‘아누 다라푸라’ ‘캔디’ 등 고대 심할라 왕조와 함께 꽃 피운 불교의 성지로서 오랫동안 스리랑카를 통치했던 심할라 왕조의 문화가 생생히 남아 있는 곳 등 세계문화유산이 준비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플론나루와는 10~12세기 당시 심할라 왕조의 고대도시이며 상당한 규모의 불교 도시였다. 이곳은 시기리아 바위요새로도 유명한데 시기리아는 5세기경 심할라 왕조의 왕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바위산 자체가 하나의 왕궁인 셈이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리 만큼 유명한데 있다.

플론나루와는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불교 사원인 갈비하라 사원이 있으며 특히 약 4.5m 높이의 좌상과 부처의 입상, 14m 길이의 열반상이 감탄을 자아낸다.



[사진4] 플론나루와 불상



[사진5] 시기리야 바위요새



[사진6] 시기리야 벽화

시기리야 바위요새를 건설한 사람은 5세기 심할라 왕조의 카사파 왕으로 부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후 후환을 걱정해 높이 200m의 바위산에 왕궁을 건설했다고 전해진다. 바위산 절벽 돌출된 바위 벽면에 1,400년 전에 그린 풍만한 가슴을 매력적으로 드러낸 18명의 미녀도 벽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

Kandy시는 쿨롬보 북동쪽 약 90Km, 해발고도 488m에 위치하고 있는 호반도시로 산과 호수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곳인데 15세기에 건설된 고도(古都)로, 18세기까지 심할라 왕조의 수도였으며 유럽의 영향을 받지 않은채 전통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사진7] Kandy시의 달라다 말라가바 사원

시가지 중앙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의 북안에 있는 달라다 말라가바(Dalada Maligawa) 사원(佛齒寺)에는 석가모니의 치아(齒)사리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하다. 성지순례에서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Ruwan Uditha의 고향은 스리랑카 쿨롬 보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내려가는 스리랑카 남부 항구도시인 마타라(Matara)이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식민지시대에는 중요한 무역항이었으나 지금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마타라 주(州)의 중심지로, 녹차●고무●차●코코넛과 철광석●녹주석이 생산된다. 시나몬(cinnamon)●시트로넬라(citronella) 등의 향료산지로서 유명하다. 특이하게도 바다에서 장대낚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Polhena Beach 등 아름다운 해변이 많아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두산백과)



[사진8] 바다에서 장대낚시



[사진9] Matara Beach

고향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신 아버님과 녹차농장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출가해서 서점을 운영 중인 누나 1명, 대학교에서 에어로빅을 전공하고 교사임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동생 1명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남동생 1명 등이 있는 다복한 가족이 있다.

고향에는 사원 Weherahena은 만화로 부처의 삶을 그린 벽화가 있고 엄청나게 큰 부처상이 있어 매우 유명한 절이다. 큰 부처상의 옷은 물결무늬로 되어 있어서 자꾸 보면 보는 이에게 다가 오는 듯한 느낌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진10] 사원 Weherahena의 큰 불상

한국에 오게 된 동기를 묻자 한국에 먼저 온 친구가 ‘한국으로 오면 너무도 좋다’며 꼭 오라고 하는 권유도 있고 뉴스 등에서도 한국근로에 대하여 잘 안내되어 마음을 굳건히 먹고 열심히 준비해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오기를 너무도 잘 했다고 스스로 대견스러워 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EPS)에 의해 2011년 4월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경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주)에스엠텍에서 근무하고 있다. 에스엠텍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CNC 선박작업을 하고 있다. 스리랑카근로자 11명(여자 2명 포함), 파키스탄근로자 3명 등 외국인근로자는 총 14명이며 한국인근로자는 10여명 정도라 한다. 처음에는 파키스탄근로자가 더 많았는데 스리랑카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점차 스리랑카근로자가 더 많아졌다고 좋아하고 있다.



[사진11] CNC 운용



[사진12] 자동차부품 가공 후 조립

그런데 회사에 대한 자량이 대단하다. 아마 사장님이 근로자 보다 먼저 인사하는 사장님은 에스엠텍 사장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도 대단해서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점 등을 물어 보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회사에 불만과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 한다.

회사 자량은 입에 침이 마를 정도인데 급여 외 보너스도 주시는데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에는 200만원 씩 주신다 한다. 또한 회사 내 기숙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한국음식을 잘 못 먹는 스리랑카근로자들을 위해서 식비를 24만원씩이나 지원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스리랑카 음식을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으며 고박 고박 잊지 않으시고 1년에 두 번씩 회식도 챙겨 주신다. 또한, 휴가도 고향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1개월 보름씩이나 배려 해 주셔서 너무도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에 다녀올 수 있음에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했다.

‘일도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너무나 즐겁다’며 ‘열심히 일해서 성실근로자가 되어 내년 2016년 2월 고용계약 만료되면 스리랑카에 돌아가서 특별한국어 시험을 보고 다시 에스 엠텍으로 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한국에 있으면서 급여를 본국에서 받는 금액의 5배 이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30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국의 아버님에게 꼬박꼬박 송금하는 알뜰한 청년으로 많은 저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동생들에게 승용차 선물, 아버님께는 주택 리모델링 등 가족을 위한 희생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5년 03월 22일 스리랑카의 설명절 (04월 14일)을 맞이하여 경상남도 함안군 마애사에서 스리랑카근로자 및 스리랑카 다문화가족 등이 모여 축하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사진 13] 스리랑카 스님 초청 음악회



[사진 14] 스리랑카에서 직접 스님들이 가져 오신 치아사리를 조심스럽게 머리에 얹고 선봉에 선 모습



[사진 15] 많은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스님의 특강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전에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스리랑카 설명절(04월 14일) 맞이 축하행사와 EPS 관련 고용체류상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음악회를 “고국 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호도 음악회 (Kavi Bana)” 형식으로 진행하여 설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지만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호심을 키우기 로 하고 특강에 스리랑카 스님 “마나카두레 파나하사라 (Manakaduree Panahasara)을 섭외 후 초청하였으며 이를 위한 홍보는 스리랑카커뮤니티, 네트워크, Facebook 등의 SNS 등과 CFC 공동으로 홍보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행사에 따른 초청자의 경비 등의 모든 경비는 스리랑카커뮤니티에서 부담하는 등 이러한 큰 행사까지도 개최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에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는 스리랑카에서 오시는 스님들의 기념품, 행사에 필요한 앰프, 마이크, 접이식 안락의자, 현수막 등을 지원하였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남에 근무 중인 스리랑카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근로자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 및 근로자간 소통기회 마련함과 동시에 스리랑카근로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스리랑카근로자 커뮤니티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Ruwan Uditha는 수 많은 행사를 리드 함에 있어 Facebook 등의 SNS를 이용하여 커뮤니티들과 열심히 소통하여 스리랑카 커뮤니티를 성장 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FC에서 스리랑카근로자 커뮤니티 리더로 활동하여 본국근로자들을 위해서 조그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지 모른다고 겸손해 한다.



[사진16] Facebook SNS를 통한 소통

Ruwan Uditha는 평상시에도 스리랑카근로자들을 위해서 신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을 찾아 신규회원으로 영입하여 한국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국 초기부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여 소통을 활발히 하고 한국근로와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리더로서 노력하고 CFC와 더불어 스리랑카근로자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17] 신규커뮤니티들과 환담



[사진18] 가끔씩 커뮤니티 소통 강화

2015년 05월 17일 “2015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외국인근로자분야에서 모범근로자로 선정되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상장과 부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산업현장에서 3년이상 근로한 모범적인 근로자에게 수여되는 이번 대상에서 맡은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로하여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에게는 밝고 나서 원만하고 통을 처리해 줌으로서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 주위에 많은 한국인들로 부터도 착하고 인사성이 바른 외국 청년으로 큰 칭찬을 받고 있다.



[사진19] 2015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



[사진20] 경상남도지사 표창 수상자들과 함께



[사진21] 의젓한 모습으로 수상

Ruwan Uditha는 꼭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내년에 출국 후 다시 입국해서 현재 에스애텍에 다시 근무하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스리랑카근로자들을 위해 노력하다가 다시 본국 스리랑카에 돌아가서는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에 오고자 하는 스리랑카 후배근로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기도해 본다.

네팔지진 성금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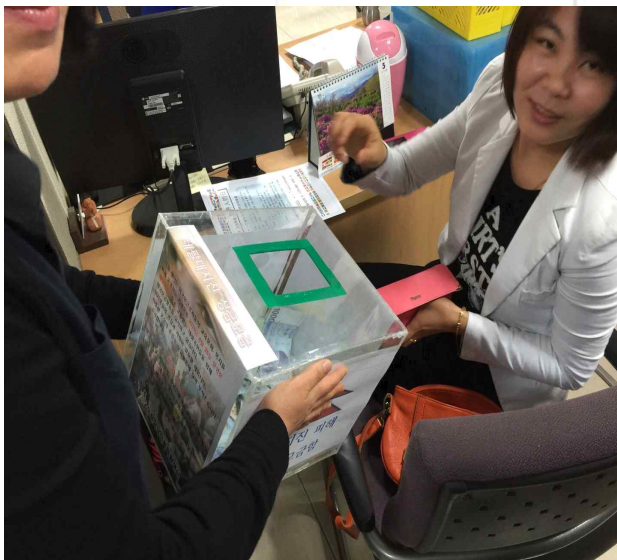
5월 3일 일요일, 센터에 많은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찾아주셔서 네팔지진피해 성금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바빠서 센터에 못오시는 분들은 계좌 후원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좌후원]

경남은행 221-0013-0338-06

예금주: 네팔지진피해성금모금



WEDUDAY 학습의날



5월의 첫 번째 weduday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속담은 네팔의 스네하 샘이 발표해주셨는데 '살이있는곳에 희망이 있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세계인의날 행사 업무분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팔지진재해복구 성금모금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weduday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속담은 박남숙팀 장님이 발표해주셨는데 '소문만 복래'라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례 발표가 있었고, EPS Green Line 구축계획과 융복합 업무 System 구축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리 활동



영화감상동아리

무더운 날씨가 점점 더해져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무더운 날씨를 날려주는 시원한
액션영화 "론리 플레이스 투 다이"를
관람했어요 ^^
영화도 보고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며
더워도 날리고 일석이조의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출신의 파퀴아오 VS
메이웨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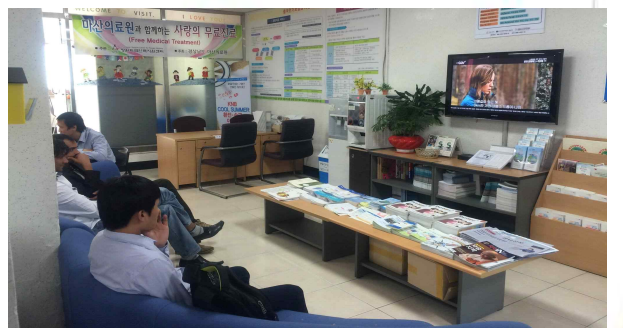
세계 챔피언 결정전이 있는 날이
요 @.@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체육동
아리 활동 시간을 통해

필리핀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세계 챔피언 결정전을 관람했습니
다.

모두들 경기 내내 눈을 떼지 않고 경
기를 관람하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만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OPIK 합격

오늘은 제39회 TOPIK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합격증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모습에

모두들 흐뭇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 모든 외국인력분들 더욱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시험 결과를 기원합니다. ^^



세계인의날 K-POP festival 예연

2015년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한국가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인 예심이 있는
날이었어요 @. @

15:00 부터 시작된 예심은 많은
국가의 외국인분들께서 참가해주셔서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한국인 못지않은 한국어 실력과
뛰어난 노래실력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예심이었어요

5월17일 행사의 본선에서도
예심에서의 긴장을 풀고
더욱 뛰어난 본연의 실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경상남도 세계인의날 행사

2015년 0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조금 앞당겨 5월
17일,

경상남도청에서 2015년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부 2부로 나뉘어져 1부에서는 기념식 행사와 다양한 공연, 시상등이
있었고, 1부가 끝난 후 커뮤니티들이 준비한 각 국가의 음식을
체험해보는 점심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외국인 KPOP Festival
본선무대가 있었습니다.

눈이 즐거웠던 1부와 귀가 즐거웠던 2부, 찾아주신 모든분들이 잘
즐거 주셔서 감사히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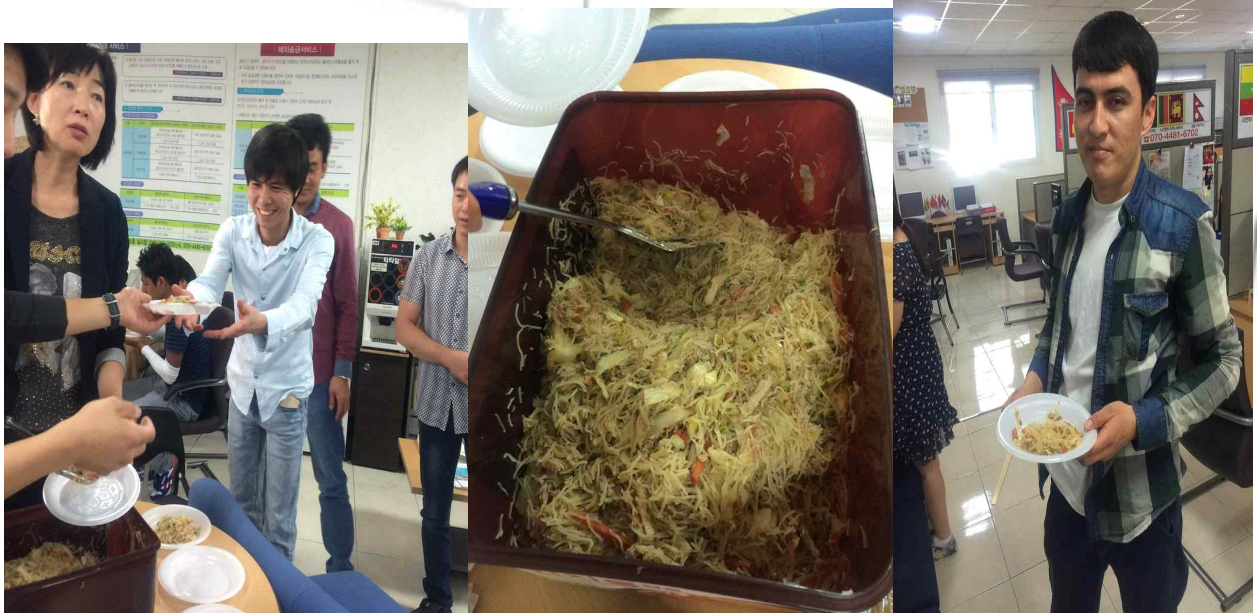
행사를 와주신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행사도 기대 해
주세요~^^





필리핀 음식체험

오늘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필리핀의 잡채인 '반싯'을
센터를 찾아주신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삭아삭 닭고기와 야채와
당면이 섞인 맛있는 식감이
입맛을
자극하네요 ^^



5월 생일파티



무더위가 한층 더해지는 여름날이지만 오늘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력분들이 방문해주셔서 상담과 한국어, 정보화 교육 수업을 들으며, 한국생활을 보람차고 유익하게 열심히 하고있어요 ^^

늘 열정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인력분들 중 5월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5월 생일 축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축하 해 주셨어요~



창원 침례교회 한국어교육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창원 침례교회에 모인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위해 한국어 교재 20부를 전달하고, 매주 정기적인 한국어 교육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필리핀 외국인력분들의 환한 미소와 밝은 모습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수업이 기대되네요~~



▶ 우즈벡 근로자 퇴직금 차액금 관련 고충 ◀

우즈벡 상담통역원 강류다

○ 상담개요

- 우즈벡 근로자 KURYZOV MADRASUL (주)지성산업에 055-545-3657 2013-04-13 부터 2015-03-30 까지 일 했음 .
-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금 못 받음.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2015.04.21. 근로자가 우리 센터에 방문 함.
-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가입 확인 함. (출국만기보험-2,023,200원.)
- 근로자의 예전 사업장 (주)지성산업에 055-545-3657 전화함
- 04.24.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금 지급한다고 함.
- 04.24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금 지급 안 했음 ,다시 사업장에 전화 함.
- 05.08.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금 지급한다고 함.
- 05.08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금 지급 안 했음 ,다시 사업장에 전화 함.
- 05.20.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금 지급한다고 함.
- 05.20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금 지급 안 했음
- 05.26 근로자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진정하겠다고 함,
- 진정서 작성 후 창원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 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진행과정 및 결과

-제21조제 3항

- 사용자는 제 2항에 따른 출국만기 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7.5.>[전문개정 2010.4.7.]



CFC 6월 행사 안내

첫째 주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 바다무지개 소식지 6월호 발간
- ▶ 사회공헌활동(08:00~19:00)

둘째 주

- ▶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12:00~)
- ▶ 마산외교원 무료진료(14:00~16:00)
-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업무협의 방문(15:20~17:00)-장원집례교회
- ▶ 진주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셋째 주

- ▶ 마산외교원무료진료(15:00~17:00)-센터상담실
- ▶ 제13회 무료이미용서비스(09:00~12:00)-교육실 북도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 제41회 토익시험접수시작(6/15~6/17까지)
- ▶ 제40회 토익시험 성적발표(15:00)-토익홈페이지
- ▶ 2/4분기 직원 workshop

넷째 주

- ▶ 경남 모범근로자 일일투어 실시-통영, 거제 일원-필리핀근로자 80여명
- ▶ 제40회 토익시험 합격자 성적증명서 수여식(12:00)-다목적홀
-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다섯째 주

- ▶ 베트남근로자교류의날(14:00~17:00)-한국폴리텍7대학 진주캠퍼스
- ▶ 생활법률교실(15:00~17:00)-다목적홀
- ▶ 6월 생일대상자 생일축하 행사(15:00)-다목적홀
- ▶ 제8회 컴썬썬 대회 실시(1:00)-다목적102호 컴퓨터실

CFC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익명-현금(201,600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타올, 빵 각 700개, 생수 300개

경남은행-칫솔세트 200개

의환은행-칫솔세트200개

제이시티-핸드폰 충전권5매

남창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쌀800개, 쇠고기1kg, 과일

경륜공단-자전거 2대

부산우유 경남대리점-쿠퍼스 700개

< 후원계좌 >

경남은행 513-07-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